

# 논술고사 문제지

< 사회과학부/경제학부/경영학부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제시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라.

<문제 2: 30%, 500-600자>

제시문 [가], [나]의 논거를 활용하여 [마]의 밑줄 친 주장의 타당성을 논술하라.

[가]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시장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시장가격에 따라 수급이 조절되는 메커니즘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그보다는 최적의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가격메커니즘의 ‘역량’을 중시한다. 금융전문가들은 거래되는 품목들의 가격을 더욱 직접적으로 중시한다. 금융이론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확장되었고, 시장효율의 의미는 일반적인 법칙으로 확대돼 효율화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전통적인 효율적 시장이론의 핵심 메시지는 이미 결정된 금융자산의 가격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정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의 시장가격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그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자산가격의 변동은 틀림없이 외부의 ‘충격’에서만 비롯될 뿐, 자산시장 내적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효율적 시장이론을 주장하는 학파에게는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끊임없는 가격변화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 뉴스 등에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인 결과이다. 효율적인 시장이론에서는 자산가격의 거품 형성과 과열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거품으로 일컬어지는 자산가격의 폭등은 경제기초여건의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일 뿐이다. 거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지 쿠퍼, 『민스키의 눈으로 본 금융위기의 기원』

[나]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비경제적 동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성 및 오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그는 야성적 충동을 간과했다. 반면 케인즈는 경제가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으며 야성적 충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의 계산에서 야성적 충동이 차지하는 근본적 역할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10년 후에 철도, 구리광산, 섬유공장, 특허약품, 대서양 횡단 여객선, 런던의 건물로부터 얻을 수익(가격의 변화)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케인즈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야성적 충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결정은 “행동에 대한 즉흥적인 욕구”의 결과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제이론처럼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량적 편익에 정량적 확률을 곱하여 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성적 충동은 스피리투스 아니말리스(Spiritus Animalis)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야성적’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혹은 ‘생기에서 나온’의 의미를 지니며, 근본적인 정신적 에너지나 생명의 힘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경제학에서 야성적 충동은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학적 개념에서 야성적 충동은 경제에 내포된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비경제적 요소를 말하며, 사람들이 모호성이나 불확실성과 맺는 독특한 관계를 가리킨다. 우리는 때로 야성적 충동에 억눌려 주저하지만, 때로는 야성적 충동에 힘입어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을 극복하기도 한다.

-에커로프 & 실러, 『야성적 충동』

[다] 다른 모든 과일처럼 체리 역시 자연의 주기를 따른다. 덜 익었을 때에는 시름하여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맛이 점점 강해진다. 체리 농가에서는 판매 시점을 고려하여 체리의 수확시기를 결정한다. 하지만 공원에 열리는 체리는 미처 단맛이 들기도 전에 사람들의 입속으로 사라진다. 조금만 기다리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체리 과수원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체리를 따먹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체리 농가가 체리를 미리 딸 이유는 없다. 누군가 체리를 먼저 따갈 위험도 없고 잘 익은 체리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누구든 체리를 따먹을 수 있는 공원의 경우는 다르다. 체리가 완전히 익도록 내버려 두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믿고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체리를 맛볼 기회가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로버트 프랭크, 『이코노믹 씹킹』

[라] 숫자 1이상 100 이하에서 좋아하는 수를 하나 선택했을 때 그 수가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수의 평균치의 2/3에 가장 가까운 예상을 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있다. 참가자 전원이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의 평균치는 50이다. 50의 2/3는 33이다. 모든 사람들이 33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33의 2/3, 즉 22가 첫 번째 후보가 된다. 참가자 전원이 동일한 추론을 한다고 가정하면 다시 22의 2/3에 가장 가까운 수인 15를 선택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 (중략) ... 이런 식의 사고과정을 거듭하면 7, 5, 3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1이 아니면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중략) ... 그러나 20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치는 24였으며, 24의 2/3에 가장 가까운 수인 16이라고 대답한 4명이 승자가 됐다.

-도모노 노리오, 『행동경제학』

[마]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어떤 줄이 가장 빠를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줄이 가장 빠를 것인지가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이미 그 줄로 갔을 것이며, 더 이상 그 줄은 가장 빠른 줄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냥 아무 줄에나 서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 줄에나 선다면, 총명한 쇼핑객이 파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존재하게 된다. 사람들이 입구에서 시작하여 상점을 가로질러 쇼핑을 하게 된다면, 가장 빠른 줄은 입구 반대편에 있는 줄이 된다. 그러나 총명한 쇼핑객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입구 반대편 줄은 더 이상 가장 짧은 줄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빠르고 영리하고 민첩하고 경험 많은 쇼핑객들이 가장 빠른 줄을 찾는데 조금 나으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빠르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많이 빠르지는 않다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문제 3: 40%, 1,000~1,200자>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귀스타브가 처한 모순적 상황에 대해 논하라.

[가] “여기 컵과 물이 있어. 육체가 컵이라면 정신은 물이야. 컵이 없으면 물이 계속 흐르듯이,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자유로워져.”...(중략)...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없애 버릴 수는 없어. 그건 죽음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뇌를 따로 떼어내어 영양액 속에 보존하면 되는 거야.”...(중략)... 귀스타브는 아내와 두 자녀와 비밀리에 초청된 몇몇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 속으로 은둔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완전한 은둔자가 되기 위해, 외과에서 시술할 수 있는 모든 절제 수술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전신 절제를 선택했던 것이다. ...(중략)...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자 부속물들은 말끔히 제거되고 진짜 뇌라고 할 만한 것만 남았다. 의사들은 매우 신속하게 그것을 투명한 영양액으로 가득 찬 표본병 속에 넣었다. 그럼으로써 뇌는 끄트머리만 남은 경동맥을 통해 영양액 속의 당분과 산소를 직접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중략)... “아빠는 돌아가신 거야?”...(중략)... “아냐. 아빠는 여전히 살아 계셔. 단지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야.”...(중략)... “저 뇌가 보이지? 저기 표본병 속에 들어 있는 것 말이다. 저것은 80년 전부터 명상을 계속하고 있는 네 할아버지의 뇌다. 네가 책임지고 저것을 보살 피거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때때로 영양액을 갈아주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귀스타브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의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와 관련된 많은 비밀을 알아냈다. 그는 뇌로만 남음으로써 완전한 목상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중략)... 쓰레기통에 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빌리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 집 앞에 놓인 쓰레기 수거함에 비워 버렸다. 영양액을 잃은 귀스타브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다.

거리를 떠돌던 개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와서 그를 쓰레기 수거함에서 끌어냈다. 세상의 모든 은둔 수행자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연륜이 깊은 귀스타브 루블레를 궁지에서 건져낸 것이다. 하지만 개에게는 그 뇌가 한낱 고깃덩어리일 뿐이었다. 귀스타브는 허망하게 개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떠났던 한 남자의 깊디깊은 사유는 그렇게 끝이 났다. ...(중략)... 개는 식사를 끝내고 가볍게 트림을 하였다. 그리하여 귀스타브 루블레의 사유 중에서 아직 남아 있던 것들이 모두 저녁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완전한 은둔자」

[나] 소크라테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되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중략)... 갖바치가 굽은 칼과 곧은 칼 및 다른 도구들로 자르듯이 말일세. ...(중략)... 그러니 사용하고 자르는 사람 다르고, 자를 때 사용되는 것 다르지?...(중략)... 그러면 우리는 갖바치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도구만 사용해서 자른다고 말하나, 아니면 손도 사용해서 자른다고 말하나?

알키비아데스: 손도죠.

소크라테스: 그러니 그는 손도 사용하는 것인가?...(중략)... 눈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드는가?...(중략)...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데 우리는 동의하는 것이지?...(중략)... 그러니 갖바치와 기타라 연주자는, 그들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손과 눈하고는 다르지?...(중략)... 신체 전 부도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중략)...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다르지?...(중략)... 그러면 도 대체 사람은 무엇인가?...(중략)... 그래도 신체를 사용하는 쪽이라는 점만큼은 자네가 말할 수 있네. ...(중략)... 그러니까 혼 말고 다른 무엇이 그것을 사용하겠나?

**알키비아데스:**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이 사용하죠.

**소크라테스:** 혼이 다스리면서겠지? …(중략)… 사람은 적어도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 …(중략)… 혼, 신체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진 전체 말일세. …(중략)… 하지만 신체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데는 우리가 동의했었지? …(중략)… 그러면 신체가 바로 스스로를 다스리는가?

**알키비아데스:** 전혀요

**소크라테스:** 그것은 다스려진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일세. …(중략)… 그러니 이것만큼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군. …(중략)…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쳐진 것이 신체를 지배하며, 이것이 사람인 것인가?

**알키비아데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소크라테스:** 무엇보다도 그것은 아닐 걸세. 어느 한쪽이 다스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둘이 합쳐진 것이 다스릴 방도는 전혀 없을 테니까. …(중략)…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알키비아데스:** 바로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아직까지도 혼이 사람이라는 것에 관해 이 이상 분명하게 자네에게 논증할 필요가 있겠는가? …(중략)… 그러니 자신을 알라고 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혼을 알라고 시키는 걸세. …(중략)… 그러니 신체에 속하는 것들 중에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 속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니, 자신을 아는 사람은 아닐세.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I』

**[다]** 팔꿈치에 난 찰상으로 인해서 따가운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식중독이 걸리면 복통과 메스꺼움이 뒤따른다. 당신의 망막에 빛이 투사되면 시각 경험을 가지게 되고, 주위의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감각 표피가 자극을 받으면 여러 가지의 심적 사건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멀리 있는 원인들이고, 심적 사건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두뇌 상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마취가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각 기관의 말초 신경으로부터 오는 신경 신호가 차단되거나, 두뇌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를 받아서 중추 신경이 마비가 되면, 어떠한 고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신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것의 가장 근접한 물리적인 기반으로서 두뇌 상태(또는 중추 신경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심성의 존재가 적절한 신경 구조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두뇌를 이루는 분자를 모두 제거해 버리면, 그의 정신생활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의 신체를 이루는 모든 분자를 제거해 버리면,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적어도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권, 『심리철학』